



세계경제포럼, 금융발달지수 발표

이혜은 연구원

■ 세계경제포럼(WEF)은 주요 60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 금융발달지수(FDI: Financial Development Index)를 발표함.

- 지난 해 조사에서 4위였던 홍콩은 보험과 기업공개(IPO) 등 비금융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올해 미국(2위)과 영국(3위)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으며, 상위 10개국에는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등이 포함됨.
- 금융발달지수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의 주도로 금융 안정성, 규제 및 정치적 환경의 건전성 등을 바탕으로 각국 금융시스템의 발전도를 측정한 수치로서 지난 2008년 처음 발표되기 시작함.
- 이는 주요국들의 제도적 환경과 기업환경, 금융안정성, 은행금융서비스, 비은행 금융서비스, 금융시장, 금융접근성 등 7개 항목을 분석해 평가한 것임.

〈표 1〉 2011년 금융발달지수(FDI) 순위

구분	2011년 순위	2010년 순위	FDI 점수	전년 대비 점수 증감
홍콩	1	4	5.16	+0.12
미국	2	1	5.15	+0.03
영국	3	2	5.00	-0.07
싱가포르	4	3	4.97	-0.08
호주	5	5	4.93	-0.08
캐나다	6	6	4.86	-0.11
네덜란드	7	7	4.71	-0.04
일본	8	9	4.71	+0.05
스위스	9	8	4.63	-0.09
노르웨이	10	15	4.52	+0.18
한국	18	24	4.13	+0.13
중국	19	22	4.12	+0.08

■ 홍콩의 정상등급과 함께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약진이 두드러짐.

- 싱가포르의 1단계 낮은 4위로 떨어졌지만, 일본은 지난해 9위에서 8위, 말레이시아도 17위에서 16위에 올랐으며 한국은 18위, 중국은 19위를 기록함.
-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안정된 경제와 금융권으로 IPO와 합병이 활발한 반면, 서방 국가들의 금융은 단기적인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번 보고서를 통해 장기적인 지도력 또한 위협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올해 한국의 순위는 7점 만점에 4.13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6단계 상승한 18위를 차지했음.

- 세부적으로는 비은행 금융서비스(2위), 기업환경(15위), 금융시장(17위)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음.
- 반면에 금융안정성(38위), 제도적 환경(34위), 금융접근성(45위), 은행 금융서비스(20위) 등의 분야는 부진했음.

■ 또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시작된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위협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등장하여 현재의 문제들은 오로지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지적함.

(WEF 등, 12/14)